



푸른 눈의 수행자들이 불교에 귀의한 까닭은?

나는 무엇? 참 나를 찾다

‘공부하다 죽어라’ 출간...현각·무진 스님 등 이야기 답아

“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러면 종교를 믿든 그렇지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현각 스님)

하버드, 예일, 코넬 등 세계 유수의 대학을 졸업한 ‘푸른 눈의 수행자’들은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 ‘마음 공부’에 몰입했다. 그들이 말하는 마음은 무엇이며, 또 삶과 죽음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대전 자광사 주지인 청아 스님과 투시화씨가 펴낸 ‘공부하다 죽어라’(조화로운 삶)에는 그 해답이 담겨 있다.

책에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대전 자광사에 영어 법회 강연을 진행했던 11명의 ‘외국인 수행자’가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들이 걸어온 진리 추구의 길을 이야기하며’ 던진 인생의 화두가 실려 있다.

책에는 한국 불교로 출가한 현각, 명행, 무심, 무량, 무진, 청고 스님과 티베트의 텐진 위옹 등이 설립한 아라바라비 사원에서 수행을 시작한 아잔 지던트리야 스님, 스리랑카에서 계를 받은 파나완사 스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불교의 ‘도(道)’를 전파하고 있는 외국인 수행자들은 서양의 종교와 철학에서 정신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교의 명상법 등 마음공부를 통해 ‘마음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말한다.

외국인 출가승들이 안락한 삶을 버리고 어렵고 험한 길을 뚫고 돌아 결국 도착해 내린 결론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어찌 보면 아주 쉬운 ‘상식’이었다.

예일대에서 철학과 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 했던 엘리트 출신의 현각(분명 풀 린펜)스님은 불교계의 ‘스타’ 스님 중 한 사람이자 ‘만행-하버드에서 화계 사가지기’의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하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난 현각 스님은 하버드 대학원 재학시절(1990년) 한국인 승산 스님의 특강을 들은 뒤 어릴 때부터 가졌던 진리에 대한 의문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이후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깨달은 것이 바로 ‘무상(無相)’의 진리다. 그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그 변화를 막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며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무상의 진리에 관해 명상해야 한다”고 설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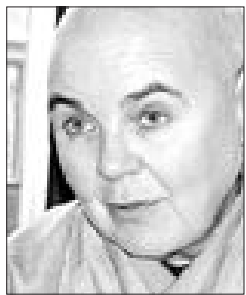
달라이라마로부터 계를 받고 출가한 계세 톨든 룬둠 스님은 “모기, 바퀴벌레도 전생의 나의 어머니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비심”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러 ‘근원적인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비심을 강조하며 “자비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인 무지를 제거한다”고 말한다.

조계종 포교상을 받은 영국 출신의 무진 스



현각 스님



무진 스님



계세 톨든 룬둠 스님

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 자유로워지라고 말한다. 그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옛 생각을 끄집어 내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에 깨어 있음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종교칼럼



이덕윤

무자녀에는 주위에 온통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다. 지나간 2007년의 많은 상황들은 고난 했지만 2008년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해로 거듭나라 희망도 가져본다.

긴 연휴 덕분에 휴가처럼 느껴졌던 ‘살’이 끝나고 어느새 일상으로 돌아왔다.

‘살’이란 말의 유래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는 뜻의 ‘살다’에서 왔다고도 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뜻의 ‘서다’는 말에서 왔다고도 한다. 그런가하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만큼 몸과 마음을 조심한다는 뜻의 ‘삼가다’의 옛말 ‘삼다’에 유래했다고도 한다. 이렇듯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은 몸과 마음의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작품이다.

원불교의 정산종사님도 새해 덕담으로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새 마음을 쟁기면 늘 새날이요 마음을 쟁기지 못하면 새해를 맞이해도 새해가 아니다”라고 마음준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

새해 되어 좋은 일을 하기로 작심하지만 삼일을 넘기지 못하는 수도 많기 때문이다(作心三日). 두 번의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마음을 먹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출발하는 것이다. 혹시 정당하지 못한 현실에 무너져들더라도 새해를 맞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새 해 새로움과 함께 새 사람 되는 길에 우리는 더욱 철이 나아졌다. 복을 삼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고자했고 노력과 수고도 없으면서 소원 성취를 바랬다면 마음이 과거에 묶어 있음이다. 우연한 요행은 나를 병들게 하는 낡은 마음이니 새해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마음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가야겠다.

예부터 꿈 심은 밭에 풀이 나고 팔 심은 밭에서 풀이 난다고 했다. 스스로가 던진 말에도 씨가 있어 복과 화를 불러오고, 몸을 사용한 행동에도 씨가 있어 거레에 복과 화를 몰고 온다. 바른 심신간의 행위로 좋은 습관 길들이는 한 해를 계획함은 스스로 복 받는 길을 장만하는 조석을 닦음이라.

더욱이 우리 마음은 일분일각도 쉼 없이 사용하기에 동정 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혹자는 좋은 일로 세상에 유익을 주고 혹자는 악한일로 세상에 피해를 주며 살아간다.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처한 그곳에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어 가도록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앞날은 분명 밝을 것이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 가정마다 스스로 장만해가는 행복과 희망의 정당한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해본다.

(원불교 교무)

사찰 문화재 해마다 50여건 화재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 급하다

사찰건축물은 화재로부터 안전할까? 국보 1호인 송례문이 전소된 사건을 계기로 국보와 보물 등 지정 문화재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 건축물의 방재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4년에 발간한 ‘화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찰에서 해마다 50여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1984년 보물 163호인 화순군 쌍봉사 대웅전의 전소를 비롯해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 원주 구룡사 대웅전 등 10여건의 화재로 사찰 건축물이 불에 탔고, 지난 2005년에는 산불에 의해 낙산사 전역이 소실되는 대 재앙을 맞기도 했다.

또 낙산사 화재 이후에도 3건의 화재가 잇

따라 발생, 김제 흥복사의 대웅전이 불에 타고 고창 문수사의 한산전과 요사채, 편액이 소실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은 낙산사 화재 이후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권역별로 30여개 주요 사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고 선진적 방재 기술 도입을 위해 일본 사찰 방재시스템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다.

또 이를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 보고서’와 ‘중요 목조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문화재청으로부터 방재 관련 예산을 확보, 해인사, 무위사, 봉정사, 낙산사 등 4곳의 사찰에서 방재대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국에는



지난 2005년 보물 제479호인 낙산사 동종이 불타고 있는 모습.

1천847건의 불교문화재가 507곳의 사찰에 분산돼 있다.

따라서 이들 사찰에 맞는 방재시스템 구축에는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수경 스님은 “많은 사찰

건축물이 화재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상주하는 관계로 더 많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송례문 화재를 계기로 목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지적 장애인 인권보호 나섰다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의료 등 긴급지원 서비스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함일봉·이하 협회)가 지적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나섰다. 협회는 법률, 직업재활, 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장애인 전문 긴급지원 서비스 one-stop solution’을 운영하

기로 하고 오는 21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프라도 호텔에서 총회를 갖는다. ‘긴급지원 서비스 one-stop solution’은 광주, 서울, 경북 등 모두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위기감정 지원을 비롯해 법률,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전화는 062-430-8568.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약1544-0600

- 1관 추격자-디지털 (184) 최고급관
- 2관 점퍼 (154)
- 3관 스파이더워그의 비밀 (전제)
- 4관 원스어폰어타임 (124)/점퍼 (154)
- 5관 6년째 연애중 (124)
- 6관 대한이,민국씨 (154)
- 7관 더 게임 (154)
- 8관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154)
- 9관 추격자 (184)

▶평점 무료평점 행사 종료했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 1관 점퍼 (154)
- 2관 마지막 선물 (154)
-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4)
- 4관 더 게임 (154)
- 5관 6년째 연애중 (154)
- 6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제)/명장 (184)
- 7관 추격자 (184)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환호시광 영화시청 •예매:www.joycoco.com/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

- 1관 원스어폰어타임 (124)
- 2관 더 게임 (154)/찰리윌슨의전쟁 (154)
- 3관 추격자 (184)
- 4관 추격자 (184)
- 5관 6년째 연애중 (154)
- 6관 우리생애 최고의순간(전제)/마지막 선물(154)
- 7관 스파이더워그의 비밀 (전제)
- 8관 찰리 윌슨의 전쟁 (154)
- 9관 대한이,민국씨 (154)
- 10관 점퍼 (154)

*호남 최대 주차장 *베트남 샵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상무점 (10관) ▶찰리윌슨의전쟁 상영시간표 밤 (11월 21일)~연

색깔있는 영화시청 •www.cinuse.com/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 1관 추격자 (184)
- 1관 더 게임 (154)
- 2관 6년째 연애중 (154)
- 3관 점퍼 (154)
- 4관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154)
- 5관 대한이,민국씨 (154)
- 5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전제)
- 6관 원스어폰어타임 (124)
- 7관 추격자 (184)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북사 사무(모바일·패케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232-9106

- 1관 찰리윌슨전쟁 (154)/우리생애최고의순간(전제)
- 2관 오퍼나지-비밀의 계단 (154)
- 3관 점퍼 (154)
- 4관 더 게임 (154)
- 5관 추격자 (184)
- 6관 대한이,민국이 (154)
- 7관 6년째 연애중 (154)
- 8관 마지막 선물 (154)
- 9관 원스어폰어타임 (124)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평점 무료평점 행사 종료합니다 *영화예매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세로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ldinema.co.kr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추격자 (184)
- 2관 6년째 연애중 (154)
- 3관 원스어폰어타임 (124)
- 4관 점퍼 (154)
- 5관 우리생애최고의순간 (전제)
- 6관 마지막 선물 (154)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